발간자료

• **시황:**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한 것은 1) 개인의 현물 순매수, 2) 개인의 ETF 순매수에 따른 금융투자의 현물 순매수였음. 시총 규모, 외국인 비중, 산업 구조 등 국내 증시와 유사한 대만 증시에서도 과거 개인 투자자들의 ETF 투자 활성화와 함께 지수 레벨이 상승한 국면 존재. 현재 코스피 ETF 시장 규모와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추가 상승여력 존재한다고 판단, 대만과 차별화되는 지점과 코스피 10,000pt 달성 조건
(시황/파생 김지현)

• **조선 Weekly:** 신조선가지수 8주 연속 상승. 탱커와 컨테이너선 상승. 삼성중공업, Seapeak으로부터 LNG선 3척 수주. 미국 ConocoPhillips는 Alaska LNG 파이프라인에 천연가스 공급 합의,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산 LNG를 보내기로 함. HD현대삼호, Ciner로부터 VLAC 6척 수주. 탱커, 중국과 일본의 수주: 그리스 JHI Steamship, 일본 Imabari SB에 아프라막스 탱커 1척 추가 발주. Zodiac은 중국 Hantong SHI에 수에즈막스 탱커 4척 발주
(조선/기계/방산 최광식)

• **방산:** 잔고에서의 어닝(FWD 3년 최고 EPS) X 적정PER 30배 + 2) 파이프라인 가치 합산으로 적정주가 상향. '파이프라인 가치' VALUATION 방법론은 보고서 참고. 선호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.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잔고의 이익 가치 88.4조원(주당 175만원) + 파이프라인 가치 15.3조원로 적정시총 105조원. 현대로템은 잔고 이익 가치 29.0조원(주당 27만원) + 파이프라인 가치 14.4조원로 적정시가총액 43.7조원 제시
(조선/기계/방산 최광식)

• **에스엘_BUY/11만원:** 투자의견 BUY 유지, 적정주가 11만원으로 상향. 2026년 EPS에 P/E 13배를 적용. 로봇 위탁생산사업 등 미래성장에 대한 가치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업체 중 최대규모 이익 경신이 지속 중동사는 현대차그룹의 1)최근 사업재편 2)북미 SUV 호조 3)로봇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최대 수혜
(자동차/이차전지 유지웅)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

투자등급 비율

BUY : 91.7%	HOLD : 8.3%	SELL : 0.0%

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
- BUY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 이상
- HOLD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이상~ +15% 미만.
- SELL: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5% 미만.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

-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
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